



장마철 농가텃밭 불청객 달팽이, 등록 농약으로 안전하게 방제하세요

- 장마철, 시설 하우스·노지 텃밭에 달팽이 발생 급증
- 농촌진흥청, '유인 살충법' 안내...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방제
- 비 갠 후 달팽이 활동 시기(저녁 무렵) 작물 주변 토양에 뿌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최근 장마철 높은 습도로 시설 하우스는 물론 도시 텃밭에서도 달팽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달팽이 방제용 농약 사용으로 피해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흔히 농업인은 물론 소규모 도시 텃밭을 가꾸는 일반인 중 달팽이를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어 피해를 방치하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농촌진흥청에는 달팽이 방제용 농약이 등록돼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달팽이 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에는 ‘메트알데하이드 입제(9개 제품)’와 ‘에토프로포스 입제(7개 제품)’가 있다.


총 28개 작물에 등록된 메트알데하이드 입제는 달팽이를 냄새로 유인해 방제하는 농약이다. 작물에 직접 살포하지 않고, 달팽이가 은신하는 작물 주변의 흙 표면이나 비닐 멀칭 위, 밭고랑 등에 흩뿌려두는(토양처리) 방법을 취한다.

이때,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낮보다는 달팽이가 은신처에서 기어 나

오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달팽이는 낮 동안 흙 속이나 비닐 아래, 작물 잔재물 밑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고 습도가 높아지면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달팽이는 그 습성을 이해하고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라며 “다만, 농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기된 적용 작물과 병해충, 사용 방법, 주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책임자	과 장	유오종 (063-238-0820)
		담당자	사무관	임영주 (063-238-0833)
<small>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small>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